



즉시 배포용: 2015년 11월 11일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상원의원 **LARKIN** 및 하원의원 **PAULIN**, 군인 연금 신용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 추진 합의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 재향군인을 위한 두 건의 추가 법안에 서명

Andrew M. Cuomo 지사와 두 분의 법안 발의자인 상원의원 William Larkin 및 하원의원 Amy Paulin은 오늘 다음 주 예산 기간 동안에 군에서 복무한 유자격 주 및 지역 직원들의 확대된 풀을 위한 최대 3년의 추가 공공 연금 신용을 제공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Cuomo 지사는 오늘 또한 주 전역의 재향군인들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우리 재향군인들은 헌신, 애국심과 희생의 모범이며 우리는 그들에게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향군인의 날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우리 대신에 한 비범한 희생과 국내외에서의 봉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민간인 생활로 복귀한 후에 우리 지역사회에 하고 있는 공헌도 기립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한 공동체이고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전세계에서 복무하고 있는 우리 남녀 군인들의 무사 귀환을 함께 소망하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안보를 지키다가 궁극의 값을 치르신 분을 추모합니다. 우리 재향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에게 모든 뉴욕주민들을 대표하여, ‘감사합니다.’”

재향군인 연금 신용 법안

주지사와 법안 발의 의원들 사이의 합의는 기존 법률을 수정하여 군복무에 대한 연금 신용을 받을 수 있는 재향군인들의 범위를 확대할 것입니다.

현재의 법률은 뉴욕주 공무원 퇴직 제도의 현역 회원이 명예 제대자로서 5년의 기존 공공 연금 신용을 갖고 있고, 2차 대전, 한국전 또는 월남전 시기에 복무하였거나; 또는 레바논, 그레나다 또는 파나마에서의 복무와 관련하여 육군, 해군 또는 해병대 원정군 기장을 받았거나; 또는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오만, 아덴만, 오만만, 페르샤만, 홍해 및 이러한 지역의 공역에서의 작전권에서 복무한 경우 최대 3년의 군복무에 대해 근속 크레딧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도입될 새 법안은 주의 유자격 재향군인들의 니즈와 뉴욕주의 더 큰 재정 목표를 조화시킬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이전에는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던 유자격 재향군인들의 풀을 확대하고 또한 여성을 군사 갈등지에 배치되지 못하게 한 이전의 군정책 때문에 여성이 추가 연금 신용의 자격이 되지 못하게 한 제약을 제거할 것입니다. 군은 여성을 전투지에 배치되지 못하게 한 정책을 2013년에 폐지하였습니다.

주지사과 법안 발의 의원들은 협력하여 다음 두 달 동안에 다음 예산에 도입할 안을 다듬을 계획입니다.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John J. Flanag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과 매일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싸운 우리 주 전역의 재향군인들에게 무언가를 돌려드릴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은 우리 재향군인들을 보호하고 기리는 데 있어서와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한 Larkin 상원의원의 엄청난 결의에 찬사를 보냅니다. 상원은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법안을 구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Carl Heastie 하원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재향군인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그렇게 많이 희생하였는데 우리가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본인은 기쁩니다. 하원은 그렇게 많이 공헌하여 우리의 존경과 감사를 받는 뉴욕주 재향군인들을 지원하여 자랑스럽습니다. 본인은 Cuomo 지사 및 상원의 우리 동료들과 협력하여 재향군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이 중요한 혜택을 그들에게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상원의원 William Lark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Cuomo 지사께서 다가오는 예산 협상 동안에 뉴욕주의 근속 크레딧 법률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여 기쁩니다. 본인은 뉴욕주의 모든 재향군인들이 법률에 의거 공평하게 대우받도록 하기 위해 본인의 동료들과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원의원 Amy Paul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은 많은 훌륭한 사람들의 큰 노력 후에 Cuomo 지사께서 이 중요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하셔서 흥분됩니다. 우리나라를 섬긴 재향군인들은 우리의 최고 존경과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이러한 갈등지에서 복무한 재향군인들이 너무 오랫동안 연금 크레딧을 구입하는 것이 불공정하게 금지되었습니다. 본인은 불공정하게 배제되어 온 여성 재향군인들이 마침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이 중요한 혜택을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 기쁩니다."

AFL-CIO 회장 Mario Cilent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재향군인의 날에 우리가 우리나라를 섬긴 분들을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기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주지사께서 예산에 재향군인 근속 크레딧을 추구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렇게 많이 희생하신 분들을 표창하는 노정에 뉴욕주를 돌 것이라고 발표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지사의 계획은 더 많은 우리 재향군인들의 봉사를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섬긴 여성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하는 프로세스를 처음으로 만들어 그들에게 똑 같은 인정을 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이 중요한 쟁점에서 지속적으로 수고하신 **Heastie** 의장, 원내대표 **Flanagan**, 상원의원 **Larkin**과 하원의원 **Paulin**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궁극의 공공 봉사를 하신 우리 재향군인들에게 충분한 감사를 결코 표시할 수는 없지만 이 계획은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최고의 존경과 감사로 그들을 기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재단 이사장 **Wayne Spenc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박두한 예산에서 이 매우 중요한 이슈를 다시 다루기로 합의하신 주지사께 감사합니다."

공무원협회 회장 **Danny Donohu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SEA는 Andrew Cuomo 지사 및 주 양원의 리더들과 협력하여 재향군인들의 니즈가 더 높은 우선순위를 받아야 함을 인정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와 나라를 사심 없이 섬겼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존경과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TWU Local 100의 총재 **John Samuels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TWU Local 100은 모든 근로자, 특히 군에 들어가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궁극의 희생을 하는 분들을 위한 평등을 계속 주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쟁 중에 복무한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투에 참가할 자격이 없었던 우리 자매들을 포함한 모든 재향군인들이 연금을 위해 군 시기를 뒤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예산에 협력하신 주지사와 주 의회에 찬사를 보냅니다."

재향군인들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새 법률들

Cuomo 지사는 또한 뉴욕주의 재향군인들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두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법안(A7229/S305)은 재향군인이 뉴욕주 재향군인 양로원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확대합니다. 이제 적격 재향군인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분쟁에서 복무한 분들, 2차대전시 일본에서 복무중 "방사능 위험 활동"에 노출되었던 재향군인과 영속자유 작전, 이라크 자유 작전, 새 여명 작전 또는 내재적 결의 작전에서의 복무를 포함하여 페르샤만 충돌시에 복무한 재향군인이 포함될 것입니다.

Adriano Espaillat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용감하게 섬긴 분들에게 우리는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녀들은 우리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사선에 놓았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재향군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할 뿐입니다. 본인은 모든 재향군인이 뉴욕주 재향군인 양로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에 서명하신 **Cuomo** 지사께 감사합니다."

Michael DenDekker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재향군인의 날에 본인은 페르샤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에서의 분쟁시 전투에서 복무한 군인들이 뉴욕주 재향군인 양로원 프로그램의 자격이 생기도록 하는 이 법안에 서명하신 **Cuomo** 지사께 감사합니다. 오늘 더 많은 재향군인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우리의 재향군인들을 기억하는 더 좋은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 법안(S4521/A8085)은 상업 식품 낚시 면허를 모색하는 재향군인들을 위한 소득 적격 요건을 면제하는 권한을 환경보전부에 허용합니다. 신청자는 현재 상업 식품 낚시 면허를 득하려면 낚시업에서 3년 연속 년 소득이 15,000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았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였을 재향군인에게 그 요건을 면제할 것입니다.

Thomas D. Croci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군복무가 취업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향군인의 봉사에 대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그들이 민간인 생활로 돌아올 때 가용 취업 기회가 풍부하게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규에 재향군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경력을 추구하지 못하게 막는 모든 장애물을 우리는 계속 제거해야 합니다. 본인은 이 법안에 서명하신 주지사께 감사합니다.”

Michael Benedetto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재향군인들은 공정하게 대우 받을 자격이 있는데 낚시 면허 장애물 때문에 많은 재향군인들이 좋아하는 직업 추구에서 불공정하게 배제되고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그것을 시정할 것이며 우리 재향군인들의 봉사에 감사하는 이 날 본 법안에 서명하신 Cuomo 지사께 본인은 박수를 보냅니다.”

이러한 노력은 뉴욕주가 재향군인과 군인 가족들에게 케어와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전국적 리더가 되도록 Cuomo 지사가 이미 추진해온 작업의 연장입니다. 2014년에 의회는 주지사의 상이군인 소유 기업법을 통과시켜, 이러한 기업을 지원하는 기타 조치 이외에 상이군인 소유 기업이 주 계약에 참여하도록 6% 목표(연방 정보 목표의 2배)를 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또한 총무실 내에 상이군인 비즈니스 개발과를 창설하여, 본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적격 기업을 인증하도록 하였습니다. 작년 예산에서 주지사는 뉴욕주 골드스타 부모들이 가구 연소득과 상관 없이 골드스타 부모 연금 프로그램의 자격이 되도록 하기 위한 예산을 제공하였으며, 2013년에 주지사는 9/11후 재향군인을 최소 주당 35시간의 풀타임 직위에 최소 1년간 고용하는 민간 기업들을 위해 7400만 달러의 세금 감면을 시행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작년에 Cuomo 지사는 연방 재향군인부와의 ‘타격단’ 파트너십을 출범시켜, 연방 재향군인 수당 청구의 심한 적체를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 뉴욕주를 전국적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이 타격단에 배치된 뉴욕주 직원들은 뉴욕시 및 Buffalo에 소재한 재향군인부 지역 사무소 내에 125일 이상 유예된 청구를 해결하는 데 전념하였습니다. 이 타격단의 엄청난 노고 덕분에 두 연방 사무소의 청구 적체가 이제 극적으로 줄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